

신태용호 '경고' 경계령

U-20 잉글랜드전 앞두고 공격 핵심 조영욱·이상현 한번씩... 오늘 추가팬 16강 못뛰어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된 신태용호에 '경고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U-20 축구대표팀은 지난 20일 치러진 기니와 대회 조별

리그 1차전에서 3-0 대승을 거둔데 이어 23일 아르헨티나와 2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두면서 남은 조별리그 1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권을 확보했다.

한국은 조별리그 2경기를 치르는 동안 총 22차례 반칙(기니전 10개·아르헨티나전 12개)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반칙 2개는 옐로카드였다.

기니와 1차전에서 이상현(울산)이 한국의 이번 대회 첫 경고를 받았고, 원톱 스트라이커 조영욱(고려대)은 아르헨티나와 2차전에서 경고를 추가했다.

두 경기를 치르는 동안 옐로카드가 2개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경고를 받은 선수들이 공격의 핵심자원이란 게 대표팀으로서의 부담이다. 공격형 미드필더 이상현은 기니를 상대

로 전반 10분 만에 공격수 압둘라에 켈스 케이타의 돌파를 막는 과정에서 주심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조영욱의 경고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는 아르헨티나전 후반 12분 왼쪽 측면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와 엉키면서 주심은 곧바로 조영욱에게 옐로카드를 꺼냈다. 불필요한 제스처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경고를 떠안은 셈이다.

한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거나 옐로카드 2개를 잇달아 받으면 퇴장당하고, 자동으로 다음 1경기에서 나서지 못한다. 여기에 여러 경기를 치르는 동안 누적된 경고가 2개가 되도 다음 경기 출전이 정지된다. 누적된 경고들은 4강전부터 소멸한다.

이 때문에 조영욱과 이상현이 오는 26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와 대회 조별리그 3차전 최종전에서 경고를 추가하면 오는 31일 16강전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조영욱은 조별리그 2경기 동안 득점은 없었지만 아르헨티나전 페널티킥 유도를 비롯해 한국의 최전방 공격을 이끌면서 16강 조기 확정에 큰 역할을 했다.

공격수가 무리한 반칙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심판의 판단에 따라 공격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액션(일명 할리우드 액션)으로 옐로카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잉글랜드전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현의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로 공격과 수비에서 가장 굵은일을 해야 하는 포지션이다. 상대의 역습을 1차로 차단하는 역할까지 맡은 만큼 이상현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2009' 소환령

KIA 내일 '올드 유니폼 데이' 'V10' 유니폼 입고 경기 뛰고 2009년 당시 공연·이벤트 장재인 시구·미니콘서트도



KIA 타이거즈가 '2009 우승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서 뛰고 KIA는 오는 27일 광주 롯데전에서 2009년 10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서 내는 '올드 유니폼 데이' : 고 투게터 데이(GO Together Day)'를 개최한다.

'고 투게터 데이'는 올 시즌 KIA의 캐치프레이즈인 '동행(GO Together)' 정신으로 2009년 한국시리즈 우승 영광을 재현한다는 선수단의 의지를 담은 '올드 유니폼 데이'이다. KIA 선수들은 타이거즈 통산 10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순간에 입었던 2009년 당시 유니폼(챔피언스 저지)을 입고 경기를 뛴다.

이날 시구는 광주 출신의 가수 장재인이 맡는다. 장재인은 경기 전 응원단상에 올라 '나의 위성'과 '밥을 먹어요' 등 '장재인표' 감성과 매력이 가득 담긴 노래들로 야구장을 찾은 팬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드 유니폼 데이'를 맞아 2009년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준비됐다. KIA 타이거즈 '더 뉴 응원단'은 2009년 당시 히트곡 공연을 선보이고, 당시 인기 가요와 드라마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올드 유니폼 데이'가 마련된 이번 주말 홈 3연전에서는 4번 타자와 함께 외국인 타자들의 힘겨루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두 팀은 지난 5월5일 사직에서 시즌 첫 만남을 가졌다. 고향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KIA 최형우와 롯데 이대호의 첫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첫 시리즈의 승자는 최형우였다. 최형우는 KIA의 색깔이 3연승에 힘을 보태며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09년 KIA와 SK의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친 KIA 나지완이 포효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KIA 안방에서 전개될 '리턴매치'에서 새 리그에서의 적응을 끝낸 두 외국인 타자가 전면에 나선다.

롯데는 방망이에 허무하게 벤치로 돌아가던 버나디나는 최근 10경기에서 42타수 15안타로 0.357의 타율을 찍고 있다. 3개의 홈런까지 기록하면서 8타점을 올리는 등 기대했던 버나디나의 모습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

벤즈도 롯데의 신 해결사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40타수 15안타, 0.375의 타율을 기록한 그는 4개의 홈런으로 15타점을 만들었다. 앞선 첫 시리즈에서도 11타수 4안타(타율 0.364)의 성적을 내는 등 KIA 마운드가 경계해야 할 선수다.

챔피언스 저지를 입은 '호랑이 군단'이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서 1위팀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올드 유니폼 데이'에서 선수단이 입는 챔피언스 저지(10만9000원)와 모자(3만5000원)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5번 출입구에 위치한 마제스틱 클럽하우스 스토어와 온라인몰 락커디움(tigers.lockerdium.com)에서 판매한다.

KIA는 오는 7월 22일 롯데전과 8월 12일 LG전에도 '고 투게터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맨유 유로파리그 첫 우승



2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프렌즈 아레나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약스의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우승한 맨유의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맨유는 아약스에 2-0으로 완승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또한 이날 우승으로 챔피언스리그 차기 시즌 진출도 확정했다. /연합뉴스

아약스 2-0 꺾고 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선수 한 명당 평균 연봉은 577만 파운드(약 84억원)에 달했고, 특히 폴 포그바의 연봉은 1551만 파운드(약 226억원)를 기록했다. 반면 아약스는 올 시즌 코치진을 포함한 선수단 총연봉이 1810만 파운드(약 26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구단 맨유는 상대 아약스는 '패기'가 맞았다. 이날 아약스는 선발 명단 평균 나이가 만 22세 282일에 불과했다. 특히 선발 출전한 수비수 마타이스 데리트(만 17세 285일)는 역대 유럽클럽대항전 결승전에 출전한 가장 어린 선수가 됐다.

맨유는 전반 18분 선취 결승 골을 넣었다. 상대 진영에서 공을 가로챈 맨유는 페널티 지역 아크서클에 있던 폴 포그바의 왼발 슈팅으로 첫 골을 넣었다. 포그바의 슈팅은 상대 팀 다빈슨 산체스의 발을 맞고 휘어들어가 골망을 갈랐다.

맨유의 썬기 골은 후반 3분에 나왔다. 맨유 미키타리안이 크리스 스몰링의 빛나간 헤딩슛을 문전에서 오른발로 건드려 득점을 기록했다. 이후 맨유는 별다른 위기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경기 종료 직전 엔 베테랑 웨인 루니가 출전에 박수를 받

았다. 한편 맨유 선수들은 이날 다양한 방법으로 맨유 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결승 골을 넣은 폴 포그바는 "우리는 테러 희생자를 위해 뛰었다. 우리의 승리가 테러로 아픔을 겪고 있는 맨체스터에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세계 각지에서 끔찍

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테러 행위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골을 넣은 뒤 두 손을 하늘로 뻗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맨유 선수들은 경기 후 라커룸에서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들은 우승 메달을 목에 건채 "맨체스터를 위해 기도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연합뉴스

첼시, EPL 우승 퍼레이드 대신 테러 희생자 추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첼시가 우승 퍼레이드를 취소했다.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폭발 테러 여파 때문이다.

첼시 구단은 25일 "지난 23일 발생한 맨체스터 아레나 폭발 테러 희생자를 추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승 퍼레이드를 펼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팬들의 양해를 구했다.

첼시는 "우리 선수단은 28일 열리는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결승, 아스널과 경기에서도 검은색 안면을 착용해 희생자와 부상자를 위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 당국의 테러로 경계수위는 최고조에 달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각종 공개 이벤트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FA컵 결승을 앞둔 첼시와 아스널은 최근 결승전 연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했다.

아스널 구단은 "만약 FA컵에서 우승하더라도 우승 퍼레이드를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23일 맨체스터 아레나에선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에 끝난 직후 폭발물이 폭발해 어린이를 포함해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미 언론, 강정호 방출 첫 언급

팀내 비중 커 실력 가능성은 낮을 듯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에 대해 미국 현지 언론이 처음으로 '방출'을 언급했다. 피츠버그 지역 매체 피츠버그시티 페이퍼는 25일 오후 피츠버그 구단 성적을 중간평가하면서 강정호에 대해 "방출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까지 현지 언론은 이번 시즌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기 어렵다는 제한적인 표현만 썼다. 강정호와 피츠버그의 계약은 2018년 까지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메이저리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최초로 벌금 1500만원에 기소했지만, 범인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열어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

호는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해 메이저리그 복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피츠버그 구단은 처음 강정호의 음주 사고 소식이 알려졌을 때 피칭 머신을 보내주기까지 했지만, 최근 그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봉을 황용해 대해 선수 영입에 쓸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에서 강정호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강정호 측의 주장대로 징역형 때문이라면 집행유예 기간인 내년까지 현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피츠버그가 강정호를 방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강정호가 피츠버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구단은 이미 그를 제외한 선수 명단에 묶어 연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탈세 메시, 스페인서 징역 21개월...집행은 유예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FC바르셀로나(스페인)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가 결국 유죄를 받았다.

영국 매체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메시 부자는 그러나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또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해 21개월

에서 15개월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메시 부자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 유로(51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메시는 아다다스, 다농, 펠릭스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메시는 그동안 탈세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고, 메시는 항소했다. /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잉글랜드)가 '역대 가장 젊은 스쿼드'로 나선 아약스(네덜란드)를 꺾고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랐다.

맨유는 25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프렌즈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폴 포그바의 선취 결승 골과 헨리크 미키타리안의 썬기 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 성적을 포기하고 유로파리그에 '올인'했던 맨유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 차기 시즌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이날 경기는 '바위와 계란의 싸움'으로 불릴 만큼 맨유의 승리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다.

맨유는 지난해 11월 글로벌스포츠헤럴리서베이가 발표한 전 세계 축구팀 연봉